

‘사람이 머무는’ 함평군, 인구정책 성과 결실

2025 전라남도 인구정책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전남 함평군의 지속적인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이 인구정책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함평군은 전남도가 지난 19일 함평엑스포공원 금호아시아나관에서 개최한 ‘2025년 인구정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추진 체계 ▲정주 여건 개선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우수 지자체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함평군은 사람이 머무르고 정착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육·장학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

적인 인구 유출 완화 정책을 마련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함평군은 지역 실정에 맞춘 인재양성기금을 운용하며 장학사업과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지역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뒷받침해왔다.

또한 고령화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지역 정주형 통합 보건서비스’도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함평군은 이동 진료 차량을 활용해 의료 취약 지역을 방문하며 진료와 기초 검진 등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고령화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함평군은 “단기적인 인구 증가보다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



함평군, 2025년 인구정책 추진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함평/전광춘 기자



고흥군, 주소정책 업무 추진 국무총리 표창 수상

최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정부포상으로 주소 행정 역량 입증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소정책 업무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고흥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포상을 받으며, 주소정책 분야에서의 안정적인 행정 역량과 지속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소정책 공공 협업, 홍보 활용, 주소정보시설 조사 및 조치 실적 등 총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중

합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고흥군은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기적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유지관리 ▲노후·훼손된 시설물의 선제적 정비 ▲현장 중심의 주소정보 민원 대응 ▲초등학교 대상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교육 등 기초 행정부터 현장 서비스까지 균형 잡힌 주소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주소 정책은 행정서비스의 기초이자 주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받는 주소 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장성군, 2년 연속 국가유산청 ‘전통산사 활용사업 우수기관’ 선정

백양사 역사성·전통 담은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호평

장성군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분야에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국가유산청장상을 받았다.

군은 올해 ‘백학 타고 백양에 노닐다’를 주제로 백양사에서 △산사 인문학 △법당 지은 사람들 △양이의 탐험 등 다양한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평가에서 국가유산청은 천년고찰 백양사가 지닌 역사성과 불교문화의 전통

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중과 친밀하게 소통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수상을 기점으로 장성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내년에 운영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활용 프로그램에서도 한층 풍성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장성군, 2025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우수기관 수상. 장성/황해연 기자



진도군,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15억 원 확보

진도군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진도군 동의호수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인 동의호수공원은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찾는 진도군의 대표 휴식 공간으로, 주민들의 산책과 여가 활동의 중심 공간이다.

그러나, 일부 산책로의 경사도가 높아 보행 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산책로 평균 경사도를 완만하게 개선하고, 보행 취약자를 위한 교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순한 보행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진도의 자연과 특성을 반영한 생태, 휴식 공간을 함께 조성해 공원의 품격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동의호수공원을 누구나 제약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대표 녹색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며, “군민의 일상에 여유와 쉼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강진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은희)가 지난 10일, 센터 집단프로그램실에서 ‘2025년 꿈드림 사업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자기계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도예교실 작품전시회를 함께 진행했다.

이번 사업보고대회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환영사를 시작으로 수료증 및 상장 수여, 2025년 주요 사업보고, 2026년 프로그램 안내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

2025년 꿈드림 사업보고대회 및 도예 작품전시회 개최

한 해 성과 공유와 창작 성과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 마련

행했다. 특히 수료증과 상장 수여를 통해 1년간 성실히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자긍심과 성취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행사와 함께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도예 작품을 전시해 의미를 더했다.

센터는 이번 사업보고대회를 통해 2025년 추진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문화

체험 등 주요 사업을 한눈에 정리하고, 청소년들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공유했다. 또한 의견수렴 시간을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2026년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은희 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은 “사업보고대회는 단순한 결과 발표를 넘어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 돌아보

고 응원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61-432-1388)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자립 지원, 급식지원, 건강검진, 교육참여 수당, 자기계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2일부터 갑작스럽게 생활 위기를 겪어온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냥 드림 먹거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영암군민 누구나 기초푸드뱅크와 11개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만으로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공공복지 지원체

영암군, 생필품 ‘그냥 드림 시범사업’ 시행

읍·면행정복지센터, 기초푸드뱅크 방문하면 꾸러미 제공

계로, 개인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2차로 방문하면 기본 상담 후 물품을 지원하고, 3차 방문부터는 통합상담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준다.

지원 물품은 1인당 2만원 상당의 쌀·라면·통조림·휴지 등 기본 생필품 꾸러미로 복지사각지대 군민의 생활에 요긴하게 쓰일 예정이다.

하혜성 영암군 주민복지과장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영암군민에게 조건 없이 그냥 드리는 사업이 생활 안정의 중요한 기반이 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062-525-9775

